

## 해역도시는 이민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 일본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

최민경\*\*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 요코하마(横浜)를 중심으로 후발이민국가의 해역 도시가 품는 이민의 ‘기억’을 이민박물관을 포함한 도시의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요코하마의 이민의 ‘기억’은 근현대 요코하마항(横浜港)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한 미나토미라이21(みなとみらい21)의 장소성에 기대어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항지구의 “근대 항만의 발상지”로서의 장소성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본인 이민의 역사와 적극적으로 교차한다. 결과적으로 요코하마에서 이민의 ‘기억’은 요코하마항에서 바다를 건넜던 선구자인 디아스포라의 흐름, 그리고 그들과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로서 상기, 공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 이민의 떠나감과 이어짐의 ‘기억’이 글로벌화 속 진행된 도시 재개발 과정 속에서 발굴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항지구는 개항에서 시작하여 발전해 온 요코하마항, 나아가 요코하마의 역사를 계승하는 공간으로서 설정되어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계구성, 확립된 도시의 정체성과의 연동 속에서 이민의 ‘기억’ 또한 활발하게 소환된 것이다.

주제어 : 이민, 기억, 이민박물관, 일개인, 일본인 디아스포라, 해역도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 1. 서론

이민에 대한 ‘기억’이 구현되는 공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목을 받아 온 것은 박물관이다. 이른바 이민박물관의 ‘유행’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민박물관에서는 이민의 ‘기억’을 전시함으로써, 박물관의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열린 소통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화의 진행 속, 동질적인 국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혼종성(hybridity)을 특징으로 하는 이민을 어우를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제로서 박물관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은 결과였다.

그러나 이민의 ‘기억’은 박물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그것은 해역도시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오랫동안 국제적인 사람의 이동을 가능케 한 것이 바다였기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 해역도시는 바다를 건너온 이민을 수용함으로써 국가 형성의 현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뉴욕이 전형적인데, “자유의 땅으로 향해”한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입구’가 되어준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와 그곳에 위치한 이민박물관(Ellis Island National Museum of Immigration)을 시작으로<sup>1)</sup> 이민들이 거주했던 주택, 각종 에스닉타운(ethnic town) 등이 이민을 ‘기억’한다. 뉴욕의 경우, 다양성과 포용성의 추구를 도시의 가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도시 곳곳의 이민의 ‘기억’은 이러한 맥락 속에 존재한다.<sup>2)</sup>

1) “Overview+History Ellis Island”, Statue of Liberty Ellis Island Foundation Web Page (<https://www.statueofliberty.org/ellis-island/overview-history/>) <최종 검색일: 2024.02.05.>.

2)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이민 유산 주간(Immigrant Heritage Week)’이 열리는데, 이는 엘리스아일랜드를 통해 가장 많은 이민이 뉴욕으로 들어온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민은 뉴욕이라는 도시의 본질적인(essential)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Immigrant Heritage Celebration”,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Web Page(<https://www.nyc.gov/>)

그렇다면 이른바 후발이민국가<sup>3)</sup>의 경우는 어떠할까. 이들에게 이민은 근대 이후 모국을 떠난 디아스포라(diaspora)이며, 따라서 이민을 '기억'하는 방법도 앞에서 언급한 미국 등 전통이민국가와는 다르다. 다만 오늘날 도시는 보다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적 가치를 담는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기억'의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실제 이민을 떠나보냈던 후발이민국가의 해역도시는 디아스포라를 '기억'하기 위한 자원을 지니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후발이민국가가 이민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해역도시 요코하마(横浜)에 주목한다. 근대 이후 발생한 일본인 출 이민(出移民)의 역사를 품는 요코하마에서 오늘날 이민은 어떠한 내용과 논리에 따라 '기억'되고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제2장), 요코하마에 초점을 맞춰 일본인 이민사를 개괄한 후(제3장), 해외이주자료관의 설립과 전시를 검토한다(제4장).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해외이주자료관이 위치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みなとみらい21: 이하, MM21)의 장소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해역도시 요코하마의 '기억'으로서 이민의 '기억'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 하도록 한다.

site/immigrants/about/immigrant-heritage-week.page) <최종 검색 일: 2024.02.05.>

3) 1980년대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이민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전환한 국가를 말하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의 성립 자체가 이민에 의해 이루어진 전통이민국가나 사회 발전에 이민의 기여가 높고 수용의 역사가 긴 선발이민 국가와 구분된다.

## 2. 이민, 기억, 해역도시

집단기억 연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박스(M. Halbwachs)는 “모든 집단기억은 공간의 틀 속에서 명확해 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sup>4)</sup> 집단기억은 기록된 역사와 달리 살아있는 역사로서, 일상생활 속 타자와의 경험적 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상기, 공유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공간이다. 집단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공간은 살아있는 역사에 실재성을 부여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공간은 과거를 새겨 넣은 물적 범위라는 의미를 지니며 '기억'의 가시성, 경험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공간성을 주목하는데 있어 중요한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도시이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특히 근대 이후 도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전개와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인간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전송”하는 “기억의 산물이자 기억 자체”이다.<sup>5)</sup> 도시의 기억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뤄져 왔으며, 내부의 물리적 구획, 기념 시설 및 상징물 배치의 의미 등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었다. 도시의 '기억'은 때에 따라 삭제, 왜곡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과거와 현재, 다양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과 비판이 가능한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도시의 '기억' 중 이민의 '기억'은 글로벌화 속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흥미로운 메시지를 던져준다. 정도, 내용의 차이는 있겠으나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스스로가 글로벌 네트워크

4)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80, p.140.

5) 주경철·민유기 외, 『도시의 기억이다』, 서울: 서해문집, 2017, p.5.

크 속에 있음을 어필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내세우는 데 있어 국경을 넘어 이동해 온(을) 타자와의 공생은 중요한 아젠다이자, 도시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된다. 따라서 이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의 상기, 이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 전반의 다원성을 높이며 구성원 간의 공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민의 '기억'이 당사자/비당사자 모두에 의해서 활발하게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도시 보다 이민의 '기억'이 활발하게 재구성되는 곳이 해역도시이다. 그 중에서도 이민박물관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미국 엘리시아일랜드 이민박물관(1990년), 호주 멜버른 이민박물관(Immigration Museum-Museums Victoria)(1998년), 피어21 캐나다 이민박물관(Canadian Museum of Immigration at Pier 21)(1999년), 일본의 해외이주자료관(海外移住資料館)(2002년), 한국 이민사박물관(2008년)과 같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전 세계 주요 이민박물관은 대부분 해역도시에 자리한다. 이민박물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민을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지, 특정 사례를 들어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sup>6)</sup> 특히 이민박물관 속 이민 표상이 진정한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방법론적 내셔널리즘(methodological nationalism)'<sup>7)</sup>을 극복하는 것인지를 날카롭게 지적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민박물관은 이민의 '기억'이 응축된 공간으로서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은 충분한 학술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해역도시 속 이민의 '기억'은 박물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근대 이후 국제적인 인구 이동의 결절점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역도시 안에는 이민의 '기억'이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존재한다. 이민박물관 또한 해역도시라는 맥락 속에 존재하며 바다를 건너 자들에 대한 입체적인 '기억'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지혜와 권윤경의 연구는 각각 독일 브레머하펜(Bremerhaven)과 프랑스 낭트·보르도(Nantes-Bordeaux)라는 해역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민박물관을 포함하여 이들 해역도시가 이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기억'으로서 이민의 '기억'은 해당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던지기과 이를 다시 정립해 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sup>8)</sup>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다만 이민박물관을 포함한 이민의 '기억' 전반에 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전통이민국가 및 선발이민국가의 사례에 국한되는 한계를 지남에 주목하고 후발이민국가, 그중에서도 일본 요코하마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후발이민국가에게 이민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출신민, 즉 디아스포라의 '기억'이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하게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혼종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으며, 디아스포라의 '기억'은 이에 역사적 깊이를 더한다. 특히 요코하마와 같이 출신민의 역사를 품는 해역도시의 경우, 이

6) 2010년대 이후 출판된 연구 중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엄운옥, 「포스트-식민 박물관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 기념전을 중심으로」, 『역사비평』95, 역사문제연구소, 2011, 192~217쪽; 이용일,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으로서 이민박물관」, 『서양사론』112, 한국서양사학회, 2012, 68~96쪽; 田邊佳美, 「移民の記憶」の排除から承認へ: フランス・国立移民史シテ設立の政治学」, 『年報社会学論集』23, 関東社会学会, 2010, pp.94~105; Schorch, Philip, "Experiencing differences and negotiating prejudices at the Immigration Museum Melbourn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1), Taylor & Francis, 2015, pp.46~64.

7) Andreas Wimmer and Nina Glick Schiller,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SAGE Publications, 2003, pp.576~610.

8) 정지혜, 「도시의 계보: 독일이민사박물관의 도시 정체성 및 현실 구성 방식」, 『도시연구』13, 인철연구원, 2018, 321~340쪽; 권윤경, 「노예제의 보이지 않는 기억: 프랑스 항구도시들과 기억의 장소」, 『역사학보』241, 역사학회, 2019, 335~367쪽.

민의 '기억'은 도시의 이동성과 포용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소환된다.

그렇다면 해역도시 요코하마에서 이민 그리고 일계인(日系人)<sup>9)</sup>의 '기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요코하마의 이민의 '기억'에 관한 기존연구는 어디까지나 해외이주자료관이라는 이민박물관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이 이뤄졌다.<sup>10)</sup> 그러나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민박물관 또한 해역도시라는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민박물관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의 '기억'으로서 이민의 '기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이주자료관을 포함하여 요코하마가 품는 이민의 '기억'이 지니는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확장성에 대한 실마리를 모색하도록 하겠다.

### 3. 요코하마와 일본인 이민의 역사

#### 1) 최초의 출발지, 요코하마

일본인의 해외 이민은 근대화의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다. 개항 후 에도막부(江戸幕府)가 비준서 교환을 위해 미국에 파견한 견미사절단(遣米使節団)은 귀국하며 하와이에 기항하였는데(1860년), 이 때 하와이 정부로부터 일본인 노동자 공급에 대한 요청을 받는다. 19세기 중반 하와이에서는 노동집약적인 플랜테이션 방식의 사탕수수 농업이 시작되었

- 9) 지역하자면 '일본 계통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일본인 이민과 그 자손을 가리킨다. 일본인 디아스포라를 일본에서 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맥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도록 한다.
- 10) 해외이주자료관 자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므로 향후 다양한 각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한일 양국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연구이다. 임영연, 『일계인 디아스포라 브라질 이주사와 전시 문화콘텐츠 고찰』, 『일본문화학보』 50, 한국일본문화학회, 2011, 345~367쪽; 東京歴史科学研究会委員会ワーキンググループ, 『歴史系博物館の現状と課題: JICA海外移住資料館の展示検討』, 『人民の歴史学』163, 東京歴史科学研究会, 2005, pp.1~17.

으나, 원주민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고, 그 결과 해외로부터 이민을 대량 수용하게 된다. 동아시아에서는 1880년대 중반 중국인이 가장 먼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으로 활용되었지만 반중 정서의 강해지면서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1882)에 따라 그 흐름이 중단되었고 이후 이들을 대체할 노동력으로 주목한 것이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에도막부는 하와이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300여 명의 도항증을 발급하였지만, 이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메이지정부(明治政府)가 들어서면서 이는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이민 송출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증가자 역할을 하던 일본 주재 하와이 영사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어 1868년 153명의 일본인이 무허가인 상태에서 하와이로 떠난다. 이들 중 일부 여성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단기간에 목돈을 벌여 돌아오자 한 남성들이었다. 1868년은 메이지유신이 일어나 메이지시대가 시작한 원년(元年)이기에 이들을 '원년자(元年者)'라고 부르는데, '원년자'들을 태운 사이오토(Scioto)호가 출발한 곳이 바로 요코하마항(横浜港)이었다.

현편 공식적인 일본인의 이민은 약 20년 후부터 시작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이농자를 비롯한 실업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일본정부가 이민을 모집, 송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와 하와이정부가 이민 조약을 체결하고 진행되었기에 관약이민(官約移民)이라고 하며, 최초의 관약이민은 1886년 태평양을 건넜다. 다만 이들이 하와이에서 마주한 현실은 노예의 그것에 가까운 것으로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1894년 관약이민은 종료한다. 관약이민 종료 후에는 민간의 이민회사들이 설립되어 이민 송출이 계속되었는데 목적지의 경우 하와이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로도 확대하였다.

다만 하와이를 비롯하여 미국 본토로의 일본인 이민은 '황화론(黃禍論)'으로 대표되는 반일 감정의 고조 속, 1908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

었고, 대신 부상한 목적이 바로 브라질이었다. 당시 브라질은 노예 제도 폐지 후, 커피 농장 등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였다. 초기에는 이탈리아 이민의 유입이 두드러졌으나 파업, 도주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롭게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인이었으며, 1908년 781명의 첫 이민이 브라질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요코하마는 이러한 브라질 이민의 주요 출발지였다. 브라질로의 이민선은 주로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会社)의 남미 동안(東岸) 항로(일본-홍콩-싱가포르-케이프타운-브라질)를 통해 운항되었으며 고베(神戸)와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였다.

## 2) 최후의 출발지, 요코하마

일본인의 해외 이민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1942년부터 중단된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은 폐허가 된 국토가 감당하기 힘든 인구 과잉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만주, 한반도 등지로부터 돌아오는 귀환자와 출생률 증가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노동 인구의 급증은 실업자를 양산하여 사회 불안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근대 초기와 마찬가지로 해외 이민이었다. 다만 이민 송출에 과도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군국주의 및 침략주의의 부활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관련 연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로 GHQ(General Headquarters of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국총사령부)의 점령이 종료되자마자 일본인의 해외 이민은 재개된다. 1953년 이민 송출은 다시 시작되는데 외무성(外務省)이 '이민 5개년 계획(移民5年計画)'(1953년), '이민 10개년 계획(移民10年計画)'(1954년)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

다. 전후(戰後) 이뤄진 일본인 이민은 주로 중남미지역을 향했으며, 그 중에서도 약 80%를 브라질이 차지하였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브라질로의 일본인 이민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된 10년을 제외하고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일본인 해외 이민사 전체를 놓고 보면 브라질은 가장 많은 이민(약 26만 명)이 유입한 국가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200만 명에 달하는 최대의 일계인 커뮤니티는 브라질에 존재한다.

한편 요코하마의 경우, 전전(戰前)에도 하와이나 브라질로 향하는 이민의 출발지로 기능하였으나 전후 이민 송출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늘어난다. 국책으로 해외 이민이 추진되면서 대량 수송을 위해 바닷길이 이용되었는데, 요코하마항으로부터의 출발이 두드러졌다. 이는 1956년 '요코하마 이민알선소(横浜移民斡旋所)'가 설립되었다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요코하마 이민알선소'는 출발 전 이민들이 머무르면서 각종 필요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건강검진이나 사전 연수 등을 받는 시설이었다. 이 시설이 요코하마에 설립되기 전에는 고베항(神戸港)으로부터의 송출도 눈에 띄었으나, 1956년 이후 부터는 요코하마항이 이민의 주요 출발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전후 약 350편의 이민선 중 대다수가 요코하마항에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요코하마는 근대 이후 일본인의 해외 이민에 있어 1세기 넘게 꾸준히 출발지로서 기능해 온 것인데, 여기에 1973년 마지막 이민선 니폰마루(にっぽん丸)의 존재가 더해지면서 일본인 디아스포라와 요코하마는 더욱 밀접하게 교차한다. 1970년대 초반이 되면 고도 경제 성장을 이어나간 일본에서 더 이상 이민 배출 요인은 작동하지 않았고 공로(空路)를 이용한 국제 이동도 보편화되면서 해로를 통한 집단 이민 송출은 막을 내리게 된다. 마지막 이민선 니폰마루는 285명의 이민을 태우고 1973년 2월 요코하마항을 떠나 3월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하였는데, 요코하마항을 떠날 당시 이 이를 떠나보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대잔교

(大棧橋)에 모여들어 오색 종이를 날리며 기념하였다. 요코하마는 1868년 일본인 이민의 첫 출발지이자 약 한 세기가 지난 후 그것의 마지막 출발지로서 이민을 품게 된 것이다.

#### 4. 해외이주자료관 속 '기억'

##### 1) 해외이주자료관의 개요

해외이주자료관은 일본 요코하마시(横浜市) 중구 MM21에 있는 국제협력기구(國際協力機構: 이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요코하마 건물 내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해외이주자료관의 설립 경위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JICA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실행기관 중 하나인데, 그 전신은 전후 이민 송출 업무를 담당했던 해외이주사업단(海外移住事業団)이다. 그러나 1973년 마지막 이민선이 떠나면서 해외이주사업단은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어졌고, 1974년 해외기술협력사업단(海外技術協力事業団) 등과 함께 JICA로 통합된다. 다만 통합 이후에도 기존에 송출한 이민과 관련된 사후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후 업무의 필요성도 점차 사라져 결국 2000년 조직 재편을 통해 관련 업무는 폐지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일본의 해외 이민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해 온 해외이주심의회(海外移住審議會) 또한 해체되었는데, 해외이주심의회의 마지막 의건서는 이민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일본인 디아스포라 전체와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인식을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일본정부는 “해외 이주의 역사, 일개인 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일본 국민의 올바른 이해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11)</sup>

이처럼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이민은 더 이상 ‘현재 진행형’이 아니

라 ‘기억’이 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2002년 해외이주자료관은 개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해외이주자료관은 JICA 요코하마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는 JICA 요코하마가 앞 정에서 언급한 ‘요코하마 이민 앞선소’를 모태로 하기 때문이다. 의무성이 소관이었던 ‘요코하마 이민 앞선소’는 1964년 ‘요코하마 이주센터(横浜移住センター)’로 바뀌면서 해외이주사업단, 즉, 이후의 JICA 산하가 된다. 그리고 이 ‘요코하마 이주센터’가 요코하마의 다른 JICA 기관들과 합쳐져 2002년 JICA 요코하마로 출범하였으며, 이 때 해외이주자료관이 함께 만들어졌다.

해외이주자료관은 JICA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해외 이주에 관한 조사 및 지식 보급”에 의거하여<sup>12)</sup> “일본인의 해외 이주의 역사, 그리고 이민과 그 자녀인 일개인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일반인(특히 젊은 세대)의 이해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sup>13)</sup> 개관에 앞서 약 3년 간 일본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전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장하는 해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는데,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의 전미일계인박물관(全米日系人博物館), 상파울루의 브라질일본이민사료관(ブラジル日本移民史料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일개인 단체에게 협조를 구해 전시 자료의 기증, 대어를 타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약 12,000점에 이른다. 개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문헌, 사진, 영상, 현물 등 30,000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한다.

11) 「海外日系人社会との協力に関する今後の政策」, 外務省海外移住審議會 Web Page(<https://www.mofa.go.jp/mofaj/annai/shingikai/ijyu/nikkei.html>) <최종 검색일: 2024.02.05>.

12)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法」, e-GOV法令検索(<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4AC000000136>) <최종 검색일: 2024.02.05>.

13) 「海外移住資料館について, 海外移住史料館 Web Page(<https://www.jica.go.jp/domestic/jomm/outline/index.html>) <최종 검색일: 2024.02.05>.

한편 해외이주자료관에서는 열람실을 함께 운영한다. 열람실은 해외이주에 관한 약 20,000점의 참고문헌과 자료를 소장하며 관련 연구자는 물론 일본인의 해외 이민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개가 자료 외에도 회귀자료(영상, 신문, 잡지) 등을 소장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공문서관리법(公文書管理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이 지정하는 역사자료 등 보유시설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외이주자료관은 일본 국내의 일본인 디아스포라 관련 자료 소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아카이빙 자료를 공개하는 기관과는 '이주 자료 네트워크화 프로젝트(移住資料ネットワーク化プロジェクト)'를 통해 연계하고 있다. 해외이주자료관을 중심으로 되어 5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 2) 이민을 전시한다는 것<sup>14)</sup>

해외이주자료관은 전체 약 381명의 규모를 지니며, 이 중 60% 정도에 해당하는 221명의 공간이 상설전시를 담당한다. 상설전시는 총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된다. 제1 전시실 '해외 이주의 역사(海外移住の歴史)'에서는 일본인 해외 이민의 역사를 개괄한다. 우선 관련 역사를 다섯 시기로 나눠 각 시기의 특징 및 주요 사건과 일본의 47개 광역자치체 별 이민 송출 수를 정리한 지도를 전시한다. 이와 더불어 관악이민, 농업이민, 유학이민 등 이민의 형태에 따른 설명도 이루어지며, 마지막 이민선의 전시로 마무리된다. 제2 전시실은 해외이주자료관의 기본 이념인 '우리는 신세계에 참가한다(われら新世界に参加す)'<sup>15)</sup>를 내걸며 이민 개인에 초

14) 본 절에서 검토한 해외이주자료관의 전시 기법, 내용은 관람객으로부터의 피드백과 함께 고찰하였을 때 보다 실험력과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15) 1978년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 70주년을 기념하여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의 제목이다. 기조연설은 일본 문화인류학 연구의 선

점을 맞춰 이민 동기, '신세계', 즉, 이주한 곳에서의 노동, 생활, 커뮤니티 등 삶 전반에 대하여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3 전시실은 '일제인·일계사회의 변천·현재(日系人・日系社会の変遷・現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 일본인 디아스포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설명한다.

한편 해외이주자료관은 매년 수차례의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기획전시는 해외이주자료관이 독자적으로 기획, 운영하기도 하나, 유관 기관<sup>6)</sup>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4년 이후 개최된 기획전시의 주제는 <표 1>과 같다.

연도	주제
2004	· 축재: 외국 문화가 된 일본의 축재 · 히라오 하치사부로(平生飢三郎)
2005	· 하루(ハル)와 나쓰(ナツ): 도착하지 않은 편지 · 히로시마(広島)는 왜 해외 이주자가 많을까 · 요코하마&하와이 역사 전시: 알로하셔츠와 일본인 이민의 역사
2006	· FEU NOS PERES: 뉴칼레도니아의 일제인 · 파라과이 일본인 이주 70주년: 파라과이전 · 개척: 캐나다에 이주한 일본인 초상화전
2007	· 랑로라도 일제인 100년전: 로키산맥 아래에서 · 판란 논 이행전 · 브라질 일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진전: 신세계로 건너 간 일본인
2008	· NOSSAS LENTES: 우리들의 렌즈 · 윈더 아이즈: 미래를 잇는 아이들의 시선
2009	· 이민의 생활: 해외 일제인 사회에서 '먹다', '전하다', '즐거다', '축하하다' · 바다를 건너 신부 이야기 · 아마존에 건너간 일본인의 개척 ·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 하와이 일제인 역사 두루마리 그림 · 요코하마 발(發) 해외 이주
2010	· 수용소에서: 제2차 세계대전기 북미 일제인 헨리 스키모토(ヘンリー杉本) 작품전

구자인 우메사오 다다오(梅村忠夫) 국립민족학박물관(国立民俗学博物館) 관장이 한 것으로 그는 이후 해외이주자료관 설립 과정에서도 특별 감수라는 형태로 기여한다.

16) 최근의 기획전시에서 협업한 기관으로는 외무성 외교사료관(外交史料館), 구마모토현(熊本県), 미국 워싱턴주 일본문화회관 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 2세 병사가 본 패전 직후의 일본</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미 일본인 이주지의 과거와 오늘: 1964년부터 현재까지</li> <li>• 방향, 꿈꾸는 단무지: 광고를 통해 보는 '단무지 무역'과 일본 문화</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년 후의 캘리포니아로, 조부의 흔적을 찾아: 미쓰이 미사키(松井みさき) 사진전</li> <li>• 페루의 일제인</li> <li>• 안도 겐파치(安藤健八): 이민 지극인의 인생과 업적</li> <li>• JICA 요코하마: 해외이주자료관의 10년</li> <li>• 하와이를 살아가는 일제인: 이어지는 일본의 마음</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비: 오키나와 이민의 역사와 세계의 우치난츄(ウチナンチュ)</li> <li>• 선구자, 일본에서 하와이로 건너간 사람들: 하마노 류오(浜野龍翁)의 글씨가 있는 공간</li> <li>• 일제인과 혼혈: Hapa와 Mestizo</li> <li>• 바다를 건넌 일본인 마을</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이 가자 기슈(紀州)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와카야마(和歌山) 이민</li> <li>• 만가(マンガ)! Manga! Mangá: 일제인과 만화의 세계</li> <li>• 라라(ララ)는 무엇일까? 일본을 도와준 신물</li> <li>• 브라질 축구의 사무라이들: 일제 슈퍼 플레이어 열전</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뿌리는 후쿠오카, 꿈은 세계로: 세계에서 활약하는 후쿠오카 이민</li> <li>• TAIKEN 체험: 일제 캐나다인, 미래로 이어지는 여정</li> <li>• 바다를 건넌 히로시마-나가사키(ナガサキ)</li> <li>• 이민 화가 한다 도모오(半田知雄)의 세계</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로시마에서 세계로: 이주의 역사와 일제인의 삶</li> <li>• 하와이 일제인의 축제: 설날과 본 댄스(ボンダンス)</li> <li>• 겨울 속 조국, 아르헨티나의 일제인들: 다지마 사유리(田島さゆり) 사진전</li> <li>• 두 개의 올림픽: 스포츠가 이은 일제 사회</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국 도사(土佐)를 뒤로하고: 바다를 건넌 '이웃소(いごっそう)'</li> <li>• 멕시코의 마음을 산 이민들</li> <li>• 하와이 일제인의 발자취</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년자(元年者)로부터 시작하는 하와이 이민과 일본어 신문 역할</li> <li>• 제일 브라질인, 제일 30년을 맞이한 일제인의 역사와 일상</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추피추 마을을 개척한 남자: 노우치 요키치(野与吉)와 페루 일본인 이민의 역사</li> <li>• 볼리비아를 산다: 일제인의 생활과 마음</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마몬(熊本)과 배워보자! 구마모토(熊本) 이민의 역사와 활약</li> <li>• 커피가 이어준 일제인과 일본</li> <li>• 시애틀 헌트(ハント) 호텔: 일본어 학교의 숨겨진 역사 1945-1959</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인의 레시피: 이어지는 일본의 맛과 가족의 기억</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사 속 해외 이주: 각각의 시작</li> <li>• 옹비, 다시 한번: 오키나와 이민의 역사와 우치난츄의 유대</li> </ul>

〈표 1〉 해외이주자료관 기획 전시 목록

기획전시 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상설전시 속 '기억' 중 일부를 보다 심화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주제(음식, 전쟁,

축제 등)에 집중하여 일본인 이민사를 다시 검토하는 전시. 일본인 이민이 정착한 다양한 지역(뉴칼레도니아, 볼리비아, 아마존 등)에 주목하여 이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전시, 이민을 많이 떠나보낸 일본 내 특정 지역(히로시마, 오키나와, 구마모토 등)을 중심으로 일본인 이민사를 이해하고자 한 전시, 일본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개인(헨리 스키모토, 안도 겐파치, 한다 도모오 등)의 생애와 활동을 재구성한 전시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기획전시의 경우, 개최 기간 동안 관련 내용에 관한 전문가의 설명을 포함하는 공개강좌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기획 의도 및 전시 구성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해외이주자료관의 이민의 '기억'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이주자료관은 오랫동안 일본인 이민의 송출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다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이들 중 일부,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지역의 일본인 이민과 그 후손들이 모국에 귀환하여 정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외이주자료관 속 일본인의 해외 이민에 대한 '기억'은 이들을 포함한 것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8년 기획전시에서 일본에 돌아와 있는 일제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을 시작으로 2022년 리뉴얼 개관 과정에서는 상설전시에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였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된 상설전시 리뉴얼에서는 “이민의 족적에서 다문화공생을 위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활약 중인 일제인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민의 '기억'과 현재 일본 사회가 직면한 타자와의 공생 문제를 교차시키는 모습을 보인다.<sup>17)</sup>

## 5. 도시 속 이민의 '기억'으로: 요코하마 MM21

17)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横浜センター海外移住資料館, 『JICA横浜 海外移住資料館 館報 2022年度』,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横浜センター海外移住資料館, 2023, p.1.



### 1) MM21의 장소성

이처럼 해외이주자료관은 요코하마가 품은 이면의 '기억'이 응축된 공간으로서 중심적인 기능을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요코하마 속 이면의 '기억'은 비단 해외이주자료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도시 전반에 자리하는데, 그것은 MM21을 중심으로 한다. MM21은 요코하마시 중구와 서구에 걸치고 요코하마항을 면하여 조성된 계획도시로, 1983년 착공된 이래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MM21 구상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이는 간토대지진(関東大震災), 제2차 세계대전, GHQ 점령을 거치며 황폐해진 요코하마를 재생한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특히 요코하마의 경우 개항 이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간나이(關内)(중구)<sup>18)</sup>와 교통의 결절점인 요코하마역(横浜駅)(서구)이 조선소, 부두, 주차장 등 항만시설에 의해 분단된 상태였다. MM21은 이렇게 분단된 두 중심지를 연결하기 위해 기존의 항만시설을 이전하고 워터프런트 공간을 개발한 결과이다.

MM21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중앙지구, 요코하마역 동쪽지구, 신항지구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면의 '기억'은 신항지구를 중심으로 한다. 신항지구는 20세기 초 완성한 요코하마항 신항부두가 있는 자리로 먼저 만들어진 대잔교와 함께 근대시기 대규모 국제항으로서 요코하마항의 발전을 견인한 공간이다. 이와 더불어 신항지구에는 과거 부두만이 아니라 보세창고, 상옥 등이 존재했다는 점에서도 바닷길을 통한 사람, 물건, 문화의 이동의 역사가 가장 짙게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림 1> MM21의 위치와 지구 구분

그리고 신항지구의 이러한 특징은 MM21 개발에 있어서도 반영되었다. 요코하마시(横浜市) 항만국(港湾局)이 작성한 거리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항지구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개성 중 하나는 “근대 항만 발생지로서의 역사성”으로 이를 살리기 위해 해역도시다운 풍경, 역사자산의 활용, 배후의 간나이 시가지와의 연속성을 고려한 개발이 요구된다.<sup>19)</sup> 이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지구와는 확연히 다르다.

바꾸어 말하자면, MM21 신항지구는 요코하마의 역사, 그 중에서도 해역도시로서 걸은 국제적인 발자취를 살리는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특히 개항도시로서의 경관을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간나이와의 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아카렌가창고(赤レンガ倉

18) '관문(關門)'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개항 후 요코하마에는 외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를 구분하기 위한 관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쪽, 즉, 외국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구역이 간나이이다.

19) 横浜市港湾局みなと賑わい振興部整備推進課, 『みなとみらい 21 新港地区街並み景観ガイドライン』, 横浜市港湾局, 2010, p.3.

庫)가 대표적인데, 이는 1911년과 1913년 건설된 요코하마 세관 신항부두 보세창고를 모태로 한다. 전후 화물의 컨테이너화에 따라 취급량이 급감한 후, 방치되었던 아카렌가창고는 MM21 신항지구 정비와 함께 수리·보존·활용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공원으로서는 요코하마 시민의 쉼터는 물론 국내외의 관광객들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 아카렌가창고는 신항지구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바로 옆의 대잔교, 그리고 간나이 나이가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개항의 길(開港の道)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MM21 신항지구의 장소성 위에 요코하마는 이민을 '기억'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해외이주자료관 또한 신항지구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해외이주자료관은 JICA 요코하마의 2층에 자리하는데, JICA 요코하마는 이미 설명한 '요코하마 이주센터'와 '국제수산업수센터(國際水産研修センター)'라는 수산분야 기술협력 ODA 거점이 합쳐져 탄생하였고, 이 통합에 맞춰 MM21 신항지구에 개관하였다. JICA 요코하마의 개관은 MM21 신항지구에 "새로운 국제 거점"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해외이주자료관은 "국제적인 색채가 가득한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에 역사적인 깊이를 더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20)</sup>

## 2) MM21과 이민의 '기억'

그리고 이와 같이 해역도시로서의 역사성에 기반하여 개발, 조성된 신항지구를 비롯, MM21에서는 이민의 '기억' 또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해외이주자료관의 전시와 상호 연동하며 도시의 '기억'으로서 이민의 '기억'을 자리매김한다. MM21 속 이민의 '기억'은 크게 떠나감의 '기억'과 이어짐의 '기억'으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떠나감의 '기억'은 말 그대로 일본인 이민의 출발지로서 요코하마가 품는 '기억'을 의

미하는 반면, 이어짐의 '기억'은 바다를 건너 해외로 이주한 일본인 디아스포라, 즉 일제인과 모국 일본이 형성해 온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기억'을 말한다.

우선 떠나감의 '기억' 중 대표적인 것은 이민숙박소(移民宿)의 '기억'이다. 다른 말로는 외항여관(外航旅館)이라고도 하는데, 전국에서 모인 이민들이 요코하마에서 출항 전 머무르던 숙박시설이다. 요코하마에 도착한 후에도 이민선 승선까지는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 이민들은 이민숙박소에서 체류하며 도항을 준비했다. 다만 이민숙박소가 단순히 숙박시설로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니다. 이민숙박소는 대부분 농촌 출신이라 해외 도항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민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 공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인맥을 쌓는 등 일종의 사전 "교섭소"와 같은 기능도 하였다.<sup>21)</sup>

이민숙박소는 해외이 관약이민이 종료되고 민간 이민회사가 설립될 즈음인 19세기 말부터 신항부두에서 대잔교에 이르는 구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전성기에는 20~30곳이 존재하였으며, 1981년 마지막 남은 곳이 영업을 마칠 때까지 2세기 동안 일본인의 해외 이민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일부 이민숙박소의 흔적을 MM21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민숙박소 당시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쿠이야(福井屋)와 구마모토야(熊本屋)의 터가 남아 있으며, 이들의 존재를 환기하는 작업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이주자료관에서는 이민숙박소의 위치를 포함한 '일본인 이민 관련 기념물 지도(日本人移民関連モニュメントマップ)'를 작성, 배포하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도시 역사 아카이브 등에서도 이를 '기억'한다.<sup>22)</sup>

20) 横浜市都市整備局, 「国際協力事業団横浜国際センターがオープン」, 『横浜みなとみらい 2 インフォーメーション』68, 横浜市都市整備局, 2002, p.12.

21) 藤原法子, 「移民宿にみる都市横浜: 1950年代の移民宿を中心とする移動の視点の一位相」, 『専修人間科学論集』1(2), 専修大学人間科学学会, 2011, p.158.

22) 예를 들어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부동산(三井住友トラスト不動産)에서는

MM21 속 또 다른 떠나감의 기억은 '리마짱(リマちゃん)' 동상이다. '리마짱' 동상 일본인의 페루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다. 페루는 중남미국가 중 일본과 가장 먼저 근대적 조약(1873년 수호통상 항해조약(修通商航海条約))을 체결한 국가로 이를 배경으로 일본인의 페루 이민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뤄졌다. 제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관약이민 종료 후 활동을 시작한 이민회사는 대부분 미국 본토를 목적지로 하였으나, 그 중 하나인 모리오카상회(森岡商会)가 페루에 주목하여 1899년 790명의 일본인 이민을 송출한다. 이들은 요코하마항에서 사쿠라마루(佐倉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페루의 수도 리마에 가까운 카야오(Callao) 항에 도착하였고, 이후에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서 정착한다.

그리고 1899년 사쿠라마루의 출항에서 100년이 지난 1999년 '리마짱' 동상이 세워졌다. '리마짱' 동상은 미취학 연령 정도에 해당하는 여자 아이의 동상으로,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着物)를 입고 있으며, 이름은 페루 수도 명칭에 친근함을 표현하는 호칭 접미사를 붙인 것이다. 특이한 점은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있다는 것인데, 가리키는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마짱' 동상은 다른 이민의 '기억'들과 달리 MM21 중앙지구의 임항공원(臨港パーク)에 위치하는데 여기에서 신항지구와 그 옆의 대잔교를 바라보는 형태로 세워져 있다. 이는 요코하마항과 그 너머의 태평양을 향한 방향이기도 한데, 그곳으로 손을 뻗는 '리마짱' 동상은 일본인 이민이 떠나간 바다를 '기억'하는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MM21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본인 이민과 모국 일본의 이어짐의 '기억'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1년 신항부두 옆에 만들어진 '라라물자(ララ物資)' 기념비이다. '라라'는 Licensed Agencies for Relief in Asia의 약자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해진 아시아 국

가 지역에 대한 구제사업을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종교단체, 사회사업단체 등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이 조직이 보낸 구호품을 '라라물자'라고 하며 일본에는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식량, 의류, 의약품 등 16,704톤과 췌소 및 산양 2,000마리 이상이 들어왔는데, 특히 식량의 비중이 높아 패전 후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일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면 '라라물자'는 이민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패전국을 대상으로 구호품을 발송하였으나 대부분이 유럽을 향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는 제외되었다. 이에 하와이, 뉴욕,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의 일계인 단체들이 나서 모국 일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북미는 물론 중남미지역 일본인 이민들이 일본에 보낼 구호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받은 구호품의 약 20%는 일계인이 보낸 것이 되었으며,<sup>23)</sup> 1946년 11월 30일 요코하마 신항부두에 첫 구호품이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은 모두 요코하마항을 통해 들어왔다.<sup>24)</sup> 그리고 '라라물자' 기념비는 이와 같이 요코하마를 결절점으로 이어진 일본인 디아스포라와의 네트워크를 '기억'한다.

또 하나의 이어짐의 '기억'은 일본 브라질 수호 100주년 기념이라는 부제가 달린 '역사와 미래의 찬가, 무지개 공간 95(歴史と未来への讃歌—虹空間'95: 이하 '무지개 공간')' 조형물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브라질은 근현대에 걸쳐 가장 많은 일본인 이민이 향한 곳으로 일계인 커뮤니티의 영향력 또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무지개 공간'은 브라질에 있는 일본계 은행의 기금을 이용하여 일본과 브라질 수교 100주년

23) 飯野正子, 『『ララ』: 救援物資と北米の日系人』, レイン・リョウ・ヒラバヤシ他編・移民研究会訳, 『日系人とグローバル化: 北米、南米、日本』, 東京: 人文書院, 2006, p.120.

24) 奥須磨子, 『ララ物資と神奈川県』, 『郷土神奈川』54, 神奈川県立図書館企画サービス部地域情報課, 2016, p.6.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하나로 '이 도시 아카이브(このまちアーカイブス)'를 구축 중인데, 요코하마편에서 이민숙박소의 역사와 함께, 과거 이민숙박소의 자리가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또한 설명한다.

에 해당하는 1995년에 만들어졌다. '리마쎡' 동상과 마찬가지로 일항공원에 위치하며 일본과 브라질을 잇는 가교의 이미지를 담아 무지개다리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브라질을 향해 뻗어 있다. 무지개다리는 강철관을 겹겹이 쌓아 만들어졌는데, 이는 브라질로 이민을 싣고 향한 선박의 이미지와 그 이후의 시간의 축적을 나타낸다.

MM21의 '무지개 공간'을 더욱 흥미롭게 하는 사실은 브라질에도 같은 모양의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무지개 공간'이 설치된 곳은 남부에 있는 파라나(Paraná)주 론드리나시(Londrina)로, 이곳은 상파울루와 인접하며 많은 일본인 이민이 정착한 역사를 지니며, 전체 인구 대비 일제인 비율은 브라질 내에서도 가장 높다. '무지개 공간'은 원래 요코하마에 설치 후 바로 브라질에도 만들 예정이었으나, 앞서 언급한 일본계 은행이 파산하며 좌초되어 2023년 완성되었다. 브라질에 설치된 '무지개 공간'은 요코하마를 향해 뻗어 있으며, MM21의 '무지개 공간'은 이와 짝을 이룸으로써 이어짐의 '기억'을 가시화하고 경협하게 한다.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 요코하마가 품은 이민의 '기억'을 이민박물관(해외이주자료관)을 포함한 해역도시의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요코하마의 이민의 '기억'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근현대 요코하마항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한 MM21, 그 중에서도 신항지구의 장소성, 즉, "근대 항만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에 기대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 이민의 역사는 요코하마항에서 바다를 건너 선구자였던 디아스포라의 흐름으로서 상기,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출발 또는 떠나감의 '기억'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는 해외이주자료관의 전시 내용은 물론이고 기타 관련 조형물의 물리적 설치 양상, 즉, 임해 지구 안의 설치와

바다(태평양)를 향한 설치 등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라라물자' 기념비로 대표되는 이어짐의 '기억'도 존재하나 이 또한 과거 이민이 떠나갔던 요코하마항을 통한 이어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 아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의미 부여가 글로벌화 속 진행된 도시 재개발 과정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과거 도시 재개발은 주로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측면에 무게를 실어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민 중심 시각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의 경합 및 협상 과정"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sup>25)</sup> MM21 개발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개항에서 시작하여 발전해 온 요코하마항, 나아가 요코하마의 역사를 계승하는 공간으로서 신항지구가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도시의 정체성과의 연동 속에서 이민의 '기억' 또한 활발하게 소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념물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처럼 근현대 요코하마항의 역사와 교차하는 요코하마의 이민의 '기억'은 일본인 이민사 전체를 보았을 때,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인다. 요코하마가 품은 이민의 '기억'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태평양을 건너 일본인 디아스포라의 '기억'으로, 기타 지역으로의 출신민의 역사는 배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현대 일본인의 해외 이민 중 계구 일본의 세력권, 예를 들어, 조선, 타이완(臺灣), 만주 등지로의 이민은 양적으로 보았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이주자료관은 물론 도시의 '기억'으로서 선택되지 못하였다. 물론, 이들 지역으로의 일본인 이민의 흐름이 요코하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주대륙의 일제인민을 포함하는 상황은 일

25) 이창호,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41(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 210쪽.

본인 이민의 '기억'을 반쪽자리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를 지닌다.

또 하나 요코하마의 이민의 '기억'으로서 새로운 해석·비판이 필요한 부분은 귀환한 일제인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는 중남미지역 일제인 약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류의 움직임은 제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들어 해외이주자료관의 전시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편, 도시라는 차원에서 보면 요코하마는 수도권에서 일제인 인구가 두드러지는 지역 중 하나로 '남미 타운'이 존재할 정도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인 이민 3세, 4세에 해당하는데, 당초 1990년대 초반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의 경제 침체 속 단기간의 계획으로 일본에서 돈을 벌어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이 정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귀환으로부터 이미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의 존재와 삶을 해역도시 요코하마가 품는 이민의 '기억'의 새로운 페이지로서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역도시 요코하마가 이민을 '기억'하는 방법의 특징과 한계는 기타 해역도시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추가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라면 요코하마와 함께 많은 일본인 이민을 송출했던 고베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겠고, 동북아시아 내의 유사한 후발이민국가로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인천 등의 사례가 시사적일 것이다. 특히 후발이민국가의 경우 디아스포라의 환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과거의 이민의 '기억'이 오늘날 해당 사회가 직면하는 공생, 환대의 문제에 어떠한 실천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재료를 던져준다는 측면에서 추가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논저]

- 권윤경, 「노예제의 보이지 않는 기억: 프랑스 항구도시들과 기억의 장소」, 『역사학보』241, 역사학회, 2019, 335~367쪽.
- 엄운옥, 「포스트-식민 박물관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 기념전을 중심으로」, 『역사비평』95, 역사문제연구소, 2011, 192~217쪽.
- 이용일,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으로서 이민박물관」, 『서양사론』112, 한국서양사학회, 2012, 68~96쪽.
- 이창호,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41(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 209~248쪽.
- 임영인, 「일제인 디아스포라 브라질 이주사와 전시 문화콘텐츠 고찰」, 『일본문화학보』50, 한국일본문화학회, 2011, 345~367쪽.
- 정지혜, 「도시의 계보: 독일이민사박물관의 도시 정체성 및 현실 구성 방식」, 『도시연구』13, 인천연구원, 2018, 321~340쪽.
- 주경철·민유기 외, 『도시는 기억이다』, 서울: 서해문집, 2017.
- Andreas Wimmer and Nina Glick Schiller,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SAGE Publications, 2003, pp.576~610.
-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80.
- Schorch, Phillip, "Experiencing differences and negotiating prejudices at the Immigration Museum Melbourn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1(1), Taylor & Francis, 2015, pp.46~64.
- 飯野正子, 「『ララ』: 救援物資と北米の日系人」, レイン・リョウ・ヒラバヤシ他編: 移民研究会誌, 『日系人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北米、南米、

- 日本』, 東京: 人文書院, 2006, pp.112~135.
- 奥須磨子, 『ララ物資と神奈川県』, 『郷土神奈川県』54, 神奈川県立図書館企画サービス部地域情報課, 2016, pp.1~15.
- 田邊佳美, 『「移民の記憶」の排除から承認へ: フランス・国立移民史シテ設立の政治学』, 『年報社会学論集』23, 関東社会学会, 2010, pp.94~105.
- 東京歴史科学研究会委員会ワーキンググループ, 『歴史系博物館の現状と課題: JICA海外移住資料館の展示検討』, 『人民の歴史学』163, 東京歴史科学研究会, 2005, pp.1~17.
- 藤原法子, 『移民宿にみる都市横浜: 1950年代の移民宿を中心とする移動の拠点の一位相』, 『専修人間科学論集』1(2), 専修大学人間科学学会, 2011, pp.157~162.

#### [자료]

- “Immigrant Heritage Celebration”,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Web Page (<https://www.nyc.gov/site/immigrants/about/immigrant-heritage-week.page>) <최종 검색일: 2024.02.05.>.
- “Overview+History Ellis Island”, Statue of Liberty Ellis Island Foundation Web Page (<https://www.statueofliberty.org/ellis-island/overview-history/>) <최종 검색일: 2024.02.05.>.
- 『海外移住資料館について』海外移住史料館 Web Page (<https://www.jica.go.jp/domestic/jomm/outline/index.html>) <최종 검색일: 2024.02.05.>.
- 『海外日系人社会との協力に関する今後の政策』, 外務省海外移住審議会 Web Page (<https://www.mofa.go.jp/mofaj/annai/shingikai/ijyu/nikkei.html>) <최종 검색일: 2024.02.05.>.
-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法』,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4AC0000000136>) <최종 검색일: 2024.02.05.>.

-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横浜センター海外移住資料館, 『JICA横浜海外移住資料館 館報 2022年度』,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横浜センター海外移住資料館, 2023.
- 横浜市港湾局みなと脈わい振興部整備推進課, 『みなとみらい 21 新港地区街並み景観ガイドライン』, 横浜市港湾局, 2010.
- 横浜市都市整備局, 『国際協力事業団横浜国際センターカーオープン』, 『横浜みなとみらい 2 1 インフォメーション』68, 横浜市都市整備局, 2002, p. 1~2.

<Abstract>

How do port cities 'remember' migr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Yokohama, Japan

Choi Minkyung

Focusing on Yokohama, Japan, this study examined the 'memory' of migration held by port cities in later comers of immigration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emory' of cities including migration museu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inato Mirai 21's sense of place, based on the modern history of Yokohama Port, was embodied in the 'memory' of migration. In particular, the new port district's sense of place as the "birthplace of modern ports" actively intersects with the history of Japanese migrants that began in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the 'memory' of migration in Yokohama was recalled and shared as the flow of the diaspora, the pioneers who crossed the sea from the Yokohama Port, and the human and material networks with them.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se 'memories' of Japanese migrants' departure and 'memories' of connection were discovered during the urban redevelopment process that took place amidst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f the new port district was promoted as a space to inherit the history of Yokohama Port, and further Yokohama, which has started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In this process, the 'memory' of immigration was also actively recalled in conjunction with the newly reconstructed and established identity of the city.

Key Word: Migration, Memory, Migration Museum, Nikkeijin, Japanese Diaspora, Port City, Yokohama, Minatomirai21

논문투고일자: 2024. 02. 12.

논문심사일자: 2024. 02. 13. - 03. 03.

게재확정일자: 2024. 03. 05.